호남투데이 TV
HONAM TODAY NEWS

2026-08-15 14:17

진도군·농어촌공사, 가뭄 현장 합동점검…농업용수 확보 총력

최근 한 달 강수량 8.5㎜ 그쳐…저수지·하천 수위 크게 낮아져

용산지구 양수장 4곳 가동 차질…엔진 양수기 긴급 투입해 용수 공급 재개

둔전지역 퇴수 재활용 등 가뭄대책 강화…말단 농경지까지 공급 방안 마련

이재각 진도군수에게 한국농어촌공사 최진진도지사장과 가뭄 대응 현장을 합동 점검하고 용수 공급 대책 강화에 나섰다.진도지역에 폭염과 강수량 부족이 이어지면서 농업용수 확보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진도군과 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가 가뭄 대응 현장을 합동 점검하고 용수 공급 대책 강화에 나섰다.

이재각 진도군수는 최근 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 최진 지사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농업 가뭄 우려 지역을 찾아 저수지와 하천 수위, 양수시설 가동 상황 등을 점검했다.

진도지역은 최근 한 달간 강수량이 8.5㎜에 그치는 등 비가 거의 내리지 않으면서 일부 저수지와 하천의 수위가 크게 낮아진 상태다. 이에 따라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특히 상류부 용산지구에 설치된 양수장 4곳은 하천 수위가 양수시설의 흡입 가능 수위보다 낮아지면서 정상적인 가동이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는 이에 대응해 진도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군으로부터 엔진 양수기 3대를 지원받아 현장에 투입했다. 이를 통해 양수시설을 다시 가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농경지에 농업용수 공급을 재개했다.

지산면 심동리와 오류리 일대에서도 수장제에 설치된 양수장을 활용해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등 가뭄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가뭄 상황이 상대적으로 심각한 둔전지역에서는 농경지 등에 공급된 뒤 배출되는 퇴수를 다시 저수지로 끌어올려 활용하는 방식으로 부족한 수자원을 확보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진도군과 농어촌공사 진도지사는 앞으로도 저수지와 하천의 수위, 농경지별 용수 공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피면서 가뭄 장기화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한국농어촌공사 최진진도지사장이 이재각 진도군수에게 진도군가뭄 대응에 설명하고 잇다이재각 진도군수는 기후위기와 가뭄에 대응해 농어촌 현장에서 용수 확보에 힘쓰고 있는 공사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농업용수가 필요한 말단지역까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진 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장은 "진도군 농업인들의 가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는 밤낮으로 현장을 살피며 최선의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 기관은 폭염과 강수량 부족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가용 수원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농업용수 공급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대응을 강화해 영농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